

순천시 공영자전거 시스템 개편... "10월에 만나요"

'온누리' 관리·접근성 높이고 오작동 최소화...9월까지 운영 중단 GPS·QR코드, 전용 앱 기반 대여·반납 시스템...1시간 무료 도입

순천시가 순천시 공영자전거 '온누리' 시스템 개편에 나선다.
공유자전거의 이용이 잦아지면서 관리와 접근성을 높이고 오작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2달여간 운영을 중단하고 개편을 한다는 것이다.
순천시는 온누리 공영자전거의 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해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대폭 향상하고 대자보도시(대중교통·자전거·보행환경 도시) 완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22일 밝혔다.
순천시에 온누리 공영자전거 시대가 열린 것은 지난 2009년이다.
순천 도심 안에서 이용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합쳐져 새로운 이동 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공영자전거 이용자도 꾸준히 늘었다. 간편한 이동 수단을 이용한다는 장점 때문에 공유자전거는 인기를 끈

이다.
특히 중·단거리 교통수단으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는 것이 순천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시스템의 잦은 오류 발생과 실물 거치대에서만 대여·반납이 가능한 점 등으로 인해 지역민들의 불편이 늘고 이에 시스템 개선 요구가 계속됐다.
이에 순천시는 지난해 하반기 온누리 무인대여 시스템 전면 개편을 결정했다. 올해 총사업비 4억 6000여만 원을 투입해, GPS, QR코드 및 전용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차세대 공영자전거 대여·반납 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편과 함께 순천시는 공영자전거 400대를 전면 수리하고 스마트 잠금장치를 설치할 계획이

다. 또 그동안 이용자가 적어 일부 방치돼 온누리 공영자전거 거치대를 철거하는 한편 노후화된 거치대는 새롭게 환경정비를 할 방침이다.
추가로 온누리 전용 대여·반납 존(Zone)도 설치해 지역민들의 이용률을 더욱 높이고 불편을 해소시킬 예정이다.
순천시는 온누리 공영자전거 이용요금도 변화를 꾀한다. 1시간 무료화 정책 도입으로 지역민들의 교통이용 요금을 위한 경제적 부담에 일조한다는 것이다.
다만, 차세대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오는 7월 29일부터 약 2개월간 한시적으로 '온누리' 공영자전거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며 "'온누리 시즌2'로 새롭게 개편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가 공영자전거 '온누리' 시스템 개편을 위해 9월까지 운영을 한시 중단한다. <순천시 제공>

"광양에 농관원 지역사무소 설치" 1만5천명 서명

이원화된 업무처리 개선 요청 서명운동 목표 달성...연말까지 진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광양사무소' 설치를 요청하는 서명운동 참여자가 목표 인원 1만 5000 명을 넘어섰다.
광양시는 지난 3월부터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 서명운동'이 7월 현재 1만5436명(온라인 2349명, 오프라인 1만 3087명)이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광양시 농업인구인 1만 5000 명을 목표로 추진한 서명운동이 이미 목표치를 넘어선 것이다.
서명운동은 광양농협, 동광양농협, 광양시MG 새마을금고 등에서 적극 참여했으며 읍면동사무소와 온라인에서도 참여도가 높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광양시 농관원은 지난 1998년 농관원 순천사무소에 통합됐다.
이후 지난 2021년 4월 농관원 광양분소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민원 업무 처리 방식이 이원화돼 있고 광양분소 조직의 규모와 인원이 농관원 순천사무소에 미치지 못해 처리 가능한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광양지역 농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는 것이



광양 시민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를 요청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의 설명이다.
광양시는 아울러 현재 전남 내 통합 운영 중인 사무소는 광양을 비롯해 단 3곳뿐으로 최근 광양시보다 농가 및 농업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군 단위(완도·진도·장성 등)도 사무소가 분리 설치됐다는 점도 농관원 광양사무소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광양시연합회 외 7개 농업단체에서는 농관원 광양사무소 설치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농관원,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행안부 등에 전달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 관내농협, 농관원 순천·광양사무소, 공무원 등이 참여해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농관원 광양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법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송명중 광양시 농업정책과장은 "7월 말까지 서명운동 서명부를 8월 중 농관원 본원을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라며 "서명운동은 올해 12월 말까지로 광양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온라인 방식과 읍면동사무소 또는 관내농협에서도 참여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광양에도 농관원 지역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서명운동 참여를 당부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 어린이 식생활 교육 어린이급식센터 8월까지 프로그램

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급식센터)에서 지역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생활과 안전한 위생양양 관리를 알리는 교육을 진행한다.
곡성군 급식센터에서 '나는 옥수수가 좋아요'를 주제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5일 부터 8월까지 4주 동안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17개소에서 403명의 어린이가 참여한다.
프로그램에서는 옥수수를 주제로 컬러푸드에 대한 이야기와 효능을 안내하고 옥수수를 활용한 요리를 함께 만들면서 어린이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손 씻기 이론교육과 동영상 활용을 위생의 중요성을 알리고, 편식 없는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또 교육에 참여한 각 가정으로 컬러푸드 안내문과 음식 레시피를 제공하고, 부모들을 대상으로 SNS를 활용한 포토 이벤트도 진행하는 한다.
전원급식센터장은 "곡성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주제로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흥미를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급식센터에서는 매년 곡성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해 왔다. 2022년에는 백세미, 지난해에는 딸기를 주제로 어린이 방문교육을 실시해 어린이와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곡성=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특수교육학생 미디어교육 성과물 전시 구례도서관 '미디어 속 보물찾기' 성료...30일까지 어린이자료실

구례 지역 학생들이 구례도서관이 진행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학교연계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 수업을 듣고 있다. <구례도서관 제공>

구례도서관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학교연계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 성과를 전시한다.
전라남도교육청 구례도서관은 지난 6월부터 운영한 2024년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학교연계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인 미디어 속 보물찾기 프로그램을 마치고, 참여 학생들의 성과물을 오는 30일까지 어린이자료실에서 전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미디어 속 보물찾기' 수업은 구례의 각급 학교와 연계해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수업에서는 정보의 탐색 및 평가 과정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사용해 결과물을 만드는 미디어 활용교육으로 진행됐다.
수업에 참여한 한 담당 교사는 "학교에서 나와 도서관에서 직접 책을 보면서 수업을 들으니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준 도서관에게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각급 학교의 도움과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줬으면 한다"고 소원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면서 "하반기에도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위해 대상 학교를 확대해서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효산고 '일·학습 병행' 성과 최우수

현장실무력 갖춘 인재 양성...관광조리과·식음료서비스 과정 운영

순천효산고가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에서 전국 특성화고 140개 도제학교 가운데 최우수 등급인 'S 등급'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학교에서는 이론교육과 기초실습을, 기업에서는 기업 현실에 맞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한국형 도제식 교육 모델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국 140개 도제학교를 대상으로 학습기업 만족도, 교육훈련 평가 등 실적에 따라 S등급부터 D등급까지 5등급으로 평가한다.
순천효산고등학교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또 순천효산고는 지난 2017년 3-2차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단일학교형으로 선정돼 2017년 관광조리과에서 양식조리 L2과정으로 시작, 2019년 관광외식서비스와 식음료서비스 L3 과정을 추가해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3학년(7기), 2학년(8기) 각각 관광조리과 26명, 관광외식서비스와 20명으로 올해 총 92명아 도제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전남에서 단일학교로 가장 큰규모다.
박성영 순천 효산고교장은 "순천효산고 도제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은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역량기업에서 채용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긴장 놓지 않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름휴가, 산·바다 고민 말고 보성으로~

제암산자연휴양림 물놀이장 개장...다음달 18일까지 운영



제암산자연휴양림에 자리한 물놀이장이 개장됐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은 제암산자연휴양림에 자리한 물놀이장이 8월 18일까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휴양림 내 물놀이장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제암산자연휴양림 물놀이장은 맑고 시원한 계곡물로 아열대, 휴양관 등 숙박시설과 숲속 어드벤처가 인접해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물놀이장 바로 옆에 야영장 시설이 완비되어 캠핑과 피서를 동시에 즐기고자 하는 캠핑족들도 많이 찾고 있다.
소나무 숲 아열대는 커다란 소나무 그늘 아래 숲과 흐르는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힐링을 할 수 있다. 또 방문객들이 자주 찾는 이유라는 것이 보성군의 설명이다.
제암산자연휴양림은 물놀이장 이외에도 160ha 규모의 우거진 산림 안에 31동 56실의 숙박시설과 숲 체험 프로그램,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또 보행약자도 유모차나 휠체어를 타고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데크길이 조성돼 있다. 높이 15m, 길이 238m 규모로 호수를 조망하면서 곱셈매 탐승시 숲속을 가로지르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보성=김은중 기자 kym@kwangju.co.kr

"갑작스런 비 우산 빌려 드려요"

여수시도시관리공단, 9월까지

여수시도시관리공단(공단)이 갑작자 찾아오는 여름철 장맛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대여 서비스(사진)를 진행한다.
공단은 고객 편의를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무료 우산 대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망마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월권 회원이 대상으로 우산 대여 기간은 7일이다.
우산 대여를 원하는 회원은 망마국민체육센터 매표소에서 신분 확인 후 관리 대장을 작성하면 된다.
공단은 우산 대여 서비스를 3개월간 시행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부장 chkim@kwangju.co.kr

